

## 한·일 양국 친선협회 대표단 초청 오찬연설

존경하는 사이토 주로 일·한 친선협회 회장,

김수한 한·일 친선협회 회장, 그리고 회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청와대에 모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 취임하신 사이토 회장께도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양국 친선협회는 지난 30년 가까이 한·일간 민간외교 창구로서 두 나라의 우호협력과 신뢰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일·한 친선협회는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재일 한국인의 지방참정권을 비롯한 권익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한·일 관계 발전에 공헌해 온 여러분의 업적과 노고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빈 여러분,

우리는 국교정상화 40주년이 되는 내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정했습니다. 40년 전 연간 1만명에 불과했던 양국간 왕래가 이제는 하루 1만여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는 김포~하네다간 직항로가 열리고,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의 인기가 아주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활발한 민간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해서 두 나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양국간 우호협력의 증진이야말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내빈 여러분,

김선일 씨에 대한 살해만행사건은 국제사회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 주었습니다.

테러는 인류 공동의 적입니다. 반인륜적인 테러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합니다.

내빈 여러분,

지난 주말 베이징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제3차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단계적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같은 진전에는 일본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을 포함한 일·북 관계의 개선도 6자회담의 진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핵문제는 반드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한·일 양국 지도자 여러분,

이번 총회를 거듭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 즐겁고 편안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